

에무게프랑켄 “외투기업인의 날” 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상

서울, 대한민국, 2019년 10월 1일 - 기계공업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정밀 절삭가공 제품을 약 100년 역사를 통하여 전세계 51개 국가에서 공급해 온 에무게프랑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 금속 가공기술력이 결집된 탭핑, 밀링 및 클램핑 제품을 한국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소개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최초로 독일에서 직접 한국 투자를 결정하고 당해 5월 투자금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한국 자회사인 에무게프랑켄 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당해 말 4억원으로 증자하여 한국 자회사의 순차적 투자확대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첨단 정밀기계가공이 필요한 국내 자동차, 항공, 기계 및 조선 산업의 기술발전을 직접 지원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최근에는 세계최초로 개발된 획기적인 가공 솔루션인 편치랩을 도입하여 국내 산업기술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에 대한 공헌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1일 개최된 분기별 “외투기업인의 날” 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외투기업인의 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분기별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로가 있는 외투기업에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로, 2019. 10. 1(화) 14:00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지자체, 외투기업, KOTRA,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대진 투자정책국장은 에무게 프랑켄 이 경범 대표이사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신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에무게프랑켄유한회사의 이 경범 대표는 “이렇게 좋은 상을 수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회사보다 더 우수한 외투기업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상을 수여하게 되어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희 독일본사는 내년이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가 오랜 기업입니다. 에무게프랑켄유한회사는 이제 한국에 정착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기업처럼 첨단 금속가공기술을 통해서 현재 정체하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이 다시한번 새롭게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투기업에게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추가 투자 유도 및 성공 사례를 공유와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열린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가 그 동안 우리 산업 고도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과정에 외투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 후 외국인투자 실적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외투기업 3 개사(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실리콘 제조), 한국머크(첨단화학, 의약 제조), 에무게프랑켄(절삭공구 제조))에게 정부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사진 좌측부터: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 우종 앤드류유 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 대표, 글렌 영 한국머크 대표, 이경범 에무게프랑켄 대표, 이승현 외국기업협회장





에무게프랑켄 소개

1920 년에 창립된 에무게프랑켄(Emuge-Franken)은 지난 99 년 동안 금속가공기술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낸 독일의 세계적인 정밀 공구업체로서 자동차, 항공, 기계, 방산 등의 다양한 산업계의 고객사의 생산공정을 최적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여 왔습니다. 2019 년 현재 전세계 51 계국가에 1,900 명의 종업원을 통하여 Thread Cutting, clamping, Workpiece Clamping 등의 분야에서 선진화된 정밀 절삭공구와 최상의 솔루션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최적의 시스템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에무게프랑켄은 2014 년도에 한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첨단 기계가공 솔루션을 통하여 고객사의 최고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